

순천시, 2024 도시농업의 날 기념 나눔·체험 행사 개최

오는 13일 신대도시텃밭서 다양한 행사 진행 생활 속 도시농업 알리고 농업농촌 가치 확산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순천시 해룡면 소재 신대도시텃밭에서 '2024 도시농업의 날 기념 나눔·체험·볼거리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생활 속 도시농업을 알리고 농업농촌 가치 확산, 도농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나

눔, 체험, 볼거리 등 3개의 이벤트로 구성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모종(상추, 가지, 대추방울토마토), 텃밭용품 및 텃밭 핸드북을 나눔하고, 도시농업공동체와 함께하는 보리새싹인형 만들기, 텃밭화분 만들기, 화분갈이 체험도 제공한다. 또한 시민참여 도시

농업 사진전, 로컬푸드 상품 전시 및 판매 등 볼거리도 준비 돼 있다. 덧붙여 행사 참여자들에게 도시농업공동체 회원들이 텃밭에서 수확한 채소로 만든 전과 식혜를 비롯해 도시농업공동체 회원들이 기증한 메리골드도 분갈이 후 제공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순천시 도시농업공동체 회원들과 함께 준비하는 만큼 도농이 상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희망한다"며, "도시농업은 일상에서 시민들의 삶

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훌륭한 여가활동이므로 앞으로도 순천시 도시농업과 도시텃밭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도시농업의 날은 지난 2015년 민간 단체들이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선포하며 시작됐으며 2017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 도시민의 농사 의욕이 충만해지는 4월과 흙이 연상되는 11일(土 = + + -)을 합쳐 기념일로 정한 것이다. /최종민 기자

제58회 여수거북선축제 내달 3~6일 개최

독창적인 호국문화 퍼레이드로 전국 최고를 자랑하는 제58회 여수 거북선축제가 오는 5월 3일부터 6일까지 여수시 이순신광장과 선소 일원에서 펼쳐진다. 여수시와 여수거북선축제보존회가 공동 주최하고 여수거북선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제58회 여수거북선축제'는 '이순신의 결심, 그리고 출정!'을 주제로 열린다. 이번 축제는 전라좌수영의 호국 문화를 재현하고, 자주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주민의 참여도를 높여 화합하는 지역문화의 창조적 계승에 기여할 예정이다. 축제는 433년 전, 전라좌수사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일본군을 정벌하기 위해 전라좌수영에서 결심하고 첫 출정한 역사적 사건을 각종 작품들과 함께 조선수군 출정 퍼레이드 형식으로 재현한다. 이어 개막식 무대에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진해루 군사회의' 모습을 배우들이 출연해 연극으로

펼쳐 보일 예정이다. 이외에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프로그램으로 관객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와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이 준비된다. 특히, 올해 축제는 지난해와 달리 축제 장소를 다변화하고 새로운 시도를 통해 더욱 특별해졌다. 주 행사장을 이순신광장과 선소 유적지 등 여수 및 여천 지역으로 이원화해 특색 있게 운영하며, 관객이 함께하는 EDM 고고댄스 페스티벌, 해군 군악대 및 의장대 시연, 전라좌수영 수군 무예 시범 등 다양한 콘텐츠를 구성했다. 전시 및 체험 행사로는 통제영길 놀이 작품전시, 전라좌수영 모형 등의 전시와 포토존, 조랑말 타기, 이순신 갑옷 및 구급복 입기, 활쏘기, 병장기 체험, 신호연만들기, 이순신 명언 명시·타본 등 다채로운 체험 등이 마련되며, 해양경찰 합정 공개행사가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최종민 기자

구례-남원 소상공인연합회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부

전남 구례군과 전북 남원시의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역 상생협력을 위해 상호기부에 나섰다. 두 지역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상생협력을 위해 기부에 동참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은 지난 25일 남원시 소상공인협의회 사무실에서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부 협약식을 하고 서로의 지역에 300만 원을 기부했다.



광양시는 지붕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석면 피해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만들고자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광양시 제공

광양시, 2024년 슬레이트 지붕 처리 지원

광양시는 지붕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석면 피해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총 8억4천800만원을 투입해 ▲주택 140동 ▲지붕개량 20동 ▲주택외(축사·창고) 35동 등 총 195동에 대해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및 주택 지붕 개량 비용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및 주택 지

붕 개량비는 우선 지원 가구와 일반 가구를 구분해 차등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가구 등 우선 지원 가구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는 전액 지원되고 지붕 개량비는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된다. 일반 가구는 주택 철거·처리비는 1동당 최대 700만원, 지붕 개량비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비주택의 슬레이트 철거 지원은 200㎡ 이하의 면적에 대해 지원하며, 한센인 폐축사의 경우 철거처리비는 전액 지원된다. 신청 기한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건축물이 소재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자원순환과(061-797-2794)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민 기자

제1회 지방소멸대응포럼 곡성 개최

곡성군은 제1회 '지방소멸대응포럼 곡성'을 오는 4월 18일 14시 곡성레저문화센터 동아아트홀에서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포럼은 '사람이 모이는 행복'을 주제로 곡성의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와 대응 방안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모색해보고자 마련한 자리로 전문가 강연, 주제발표, 패널 토론 순으로 2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먼저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소의 이상립 책임연구원의 '한국 지방인구 위기와 대응방안'에 대한 기초강연으로 포럼의 문을 연다. 강연에서는 청년인구 이동을 중심으로 한 대응책이 제시된다. 그 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원도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장이 '전남인구감소 실태와 대응방안'에 대

해 발표해 곡성의 인구감소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룬다. 이 자리에서는 곡성 팜앤디협동조합의 서동선 대표와 흥성 초록코끼리의 김만이 대표가 참여해, 지방 소멸에 맞서는 청년 인구 유입 사례를 발표를 진행함으로써 농촌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의 생생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남연구원 오병기 경제산업연구실장이 주재하는 패널 토론에서는 군의원, 공무원, 청년, 교육 관계자 등 다양한 지역 패널이 모여 지방소멸 위기와 대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지방소멸대응포럼은 사전신청 없이 곡성군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기타 문의는 곡성군 기획실 지방소멸대응팀(061-250-2551)으로 하면 된다. /심선섭 기자



· 사단법인 영광법성포 굴비 보존협회 회원업체
· 전라남도 지정 영광굴비특산물사업단 회원업체
· 영광수협 중매인 18번

2代째 이어온 전통방식의 명품굴비

축가네 경성굴비

경성굴비

국내산 참조기만을 엄선하여 1년이상 간수가 빠진 천연소금으로 간하고 해풍과 습도가 알맞은 영광 법성포에서 건조하여 그 깊은 고유의 참맛을 유지하였습니다.



대표
이경률

매장 : 전남 영광군 법성면 연우로3
공장 : 전남 영광군 흥농읍 상단길2길 48

주간 061) 356-2173 **야간** 061) 356-5932
팩스 061) 356-4215 **문자** 010-8604-1486
핸드폰 010-3624-2173 / 010-3833-2173
농협 351-1092-5533-13 예금주 : 이경률

